

2024. 5. 10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1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

승무지원처장

허영훈

02-6311-9690

승무역량팀장

조한섭

02-6311-9691

담당자

김태경

02-6311-9696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3쪽

관련 홈페이지

<http://www.seoulmetro.co.kr>

### 서울교통공사, 한국철도공사와 열차 구원연결 합동훈련 실시

- 매년 1, 3, 4호선 직통운행구간에서 차량 고장으로 운행 불가능한 상황 대비 합동훈련 실시
- 신형 열차들을 투입해 신속 대처 가능하도록 ...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
- 공사, “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 역량을 강화할 것”

- 서울교통공사(이하 ‘공사’라고 함)는 열차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9일 창동차량기지에서 한국철도공사와 구원연결 합동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.
  -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직통 운행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1·3·4호선을 공동 운행하며, 열차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행하지 못할 경우 양 기관의 공조로 승객의 안전과 신속한 본선 개통을 위해 구원연결을 한다.
- 이번 훈련은 서울교통공사 열차가 쌍문역~창동역 간을 운행하던 중 장애가 발생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. 해당 차량을 한국철도공사 차량으로 구원 연결한 후 합병 운전으로 창동차량기지로 회송 및 입고하고 열차를 분리하는 연습이었다.

- 구원연결은 장애 복구에 있어 본선 개통을 위한 수단이며, 고장 열차를 가장 가까운 유치선 또는 차량기지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훈련이다.
  
- 훈련은 ▲기관사 차량고장 상황 보고 ▲객실 안내방송 실시 ▲관제 운전 정리 및 구원연결 지시 ▲승객 하차 후 합병 운전 준비 ▲구원열차와 고장 열차 합병운전으로 창동차량기지 회송 ▲입고 후 열차 분리 순으로 진행됐다.
  
- 훈련에 투입된 열차들은 최근 도입된 신형 열차들로 구성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했다. 특히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양 공사의 공통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.
  
- 기광환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은 “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합동훈련으로 양 공사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시민 안전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 “훈련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 대외기관 구원연결 합동훈련 사진 6장. 끝.



훈련 상황



연결기 연결상태

한국철도공사 경규현 열차기획처장



서울교통공사 기광환 승무본부장

양공사 참석자 기념사진 촬영